

인간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장신구 디자인 연구

김성륜

원광대학교 조형예술디자인대학, 박사과정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s New Northern Policy and Cooperation with Eurasia Countries' Initiatives Focused on China, Mongolia and Russia

Sung-Ryun Kim

Ph.D. Candidate, College of Fine Arts, Wonkwang University

요 약 오늘날의 자본주의 사회는 서로간의 경쟁이 일반화되어지고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비춰졌다. 과열된 경쟁 속에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게 되면서, 노출된 타인의 수많은 시선들을 의식하게 된다. 그 자리에 적합한 인물이 맞는지 평가의 잣대질에 서있고, 수많은 시선에 의식하게 되면서 무의식 속 자신의 행동이 통제되면서 불안감을 초래한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불안의 원인을 타인의 시선인 '눈'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였고, 불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시선에 대한 불안을 조사해보고, 영화 '블랙스완'에서 비춰지는 경쟁 속, 시선에 대한 불안 심리를 강렬한 색채와 눈에 중점을 두고 장신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작품에서 반영된 색채 또한 작가의 내면 심리를 가장 잘 보여주는 역할로, 색채를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 동시에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개하고자 노력하였다. 현대인의 만연화된 불안한 심리 표출을 감상자들에게 색채와 '눈'의 형상화를 통하여 전달하는 동시에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불안, 색채, 색채감정, 예술장신구, 디자인

Abstract Today we are living in a capitalist society where competition is prevalent and natural phenomenon. We compare ourselves to others in overheated competition, concerning the views of others. We comfort many assessments of other that causes in anxiety and controls our behaviors unconsciously. We hypothesize that such anxiety originate from eyes of others, and studied anxiety in general and anxiety about other's gaze. Specifically, the study of ornament was conducted with emphasis on the eye and intense colors from the anxiety of competition in famous movie "Black Swan". We used color in the art work as a tool to reflect the authors inner phycology, and tried to deliver author's emotion and message simultaneously. Moreover, we tried to share and express the anxiety of modern people through the from of "eye"

Key Words : anxiety, color, emotion of color, artjewelry, design

1. 서론

1.1 연구배경과 목적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관계에서는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서로간의 경쟁이 일어난다. 경쟁은 다른 사람보다 자신이 뛰어나야만 경쟁에서 살아남고, 그 결과가 중요시되는 사회에 살고 있다. 현대사회의 경쟁의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영화가 그 시대상을 반영하듯 경쟁에 관한 다양한 영화들이 주를 이루었다. 영화 '블랙스완'은 서로의 경쟁에 의한 불안 심리가 잘 반영된 영화 중 하나로, 영화에서 보여 지는 경쟁에 대한 불안함과 심리들이 마치 현대 사회의 우리들의 심리들을 대변해준다고 생각하여, 극적이고 시각적인 이미지와 더불어 강한 색채에 매료되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주인공의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함의 원인을 막중한 역할에 의한 타인들의 시선들이 주는 공포로 불안을 야기한다고 보고, 시선의 주체가 되는 눈이 시각적인 정보를 인지할 뿐만 아니라 판단하는 사고와 연동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고 인식하여, 작품의형상화 과정을 눈에 중점을 두고 진행해 나갔다.

본 연구자는 직접적으로 눈을 디자인 요소로 선택하여 다양한 눈의 형상과 영화에서 보여주는 색체에 중점을 두고 표출하고, '블랙스완' 영화에서 보여주는 불안한 심리 표현에 직면하여 현대인의 경쟁 사회에서의 불안한 심리를 보여주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불안한 내면 상태를 시각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시선의 주체인 눈을 활용하여 디자인하였다. 눈은 타인의 시선과 동일한 의미로 활용하였고, 판단하는 사고를 반영한 것으로 눈을 직접적인 디자인 요소로 불안한 심리의 표출을 반영한 장신구를 인식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불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과 불안의 원인이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여 불안의 원인이 시작되었다고 인식하여 시선에 대한 일반전인 불안심리를 조사해보고, 둘째, 영화 '블랙스완'에서 반영된 주인공의 심리를 통해 시선에 대한 불안을 파악해보았다. 셋째, 영화에서 나타난 색채대비는 불안한 상태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색에서 느껴지는 심리와 특성을 분류해보았다. 넷째, 눈을 상징하는 작품들과 작가의 심리가 반영된 작품들을 조사해보고, 마지막으로 '눈'과 색채감정을 활용하여 장신구 제작을 진행하였다.

2. 본론

2.1 불안에 대한 일반적인 고찰-시선을 중심으로

사람은 누구나 불안한 마음을 지니고 있다. 정신적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사회로부터 개개인의 현실 문제들은 다양한 방면으로 인간내면의 불안과 부정적인 감정으로 자리 잡게 되며, 이러한 감정들이 서로 뒤섞여 불안을 만들어낸다. 프로이트는 불안 신경증이라는 불안에 대한 이론에서 자아의 관점에서 접근하면, 외부적이며 위협에서부터 위협이 생기는 현실적인 불안에 의하여 내부적인 면까지 위협을 초래하는 신경증적 불안을 동반한다고 말했다. 외부적인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그 상황에 직면하기 위해서 다양한 심리 변화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반응들이 나타난다. 처해진 상황에 대한 불안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에서 오는 불안감, 사회에서 자기 자신의 역할에 대한 불안감 등 외부에서 오는 대부분의 불안감의 원인이 기대 심리로 작용하여 사람들의 인식과 시선들에 의해 나타난다. 처해진 상황에 따라 외부적인 요건으로 자신을 더욱 위협하게 하고 이러한 불안한 감정들은 신체적인 반응만 아니라 심리적인 반응을 수반하여 신경증적 불안을 초래하여, 무의식 속 심리적인 면까지 뻗어 더욱 더 불안을 초래하여 불안감은 또 다른 불안을 만들며 긴장의 연속에서 악순환 되어 진다[1-4].

과거부터 현재까지 불안이라는 감정들은 현대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심리 현상들이며 필수불가결한 관계로 늘 함께는 존재로써,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 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서로 소통하고 경쟁하며 살아가야하는 의무로 사회적 불안을 야기한다. 경쟁 사회가 되어버린 이 공간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으로 점차 치열해지고, 경쟁에 의한 타인의 시선들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게 된 우리들의 심리상태는 자연스럽게 사회불안감에서 사회공포로 변질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부담감과 공포의 대상이 감각기관인 눈에서부터 시작하여 시선공포가 나타난다고 보았다. 시선 공포는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것의 주체가 되어 인식의 도구이자 대상화가 되어 다른 사람들의 시각적 인식들이 사람의 의식들을 지배하게 된다. 대표적인 예로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여 사람의 행동과 정신을 통제하게 만드는 파놉티콘을 적용한 감옥이다.



Fig. 1. Panopticon applied prison

Fig. 1.에서 감옥의 원리는 가운데 원의 형태인 공간에 높은 감시탑을 세우고, 중앙감시탑 바깥쪽 원의 둘레를 따라 죄수들의 방이 배치되도록 설계되었다. 또 가운데의 감시탑은 항상 어둡게 하고, 반대로 죄수의 방은 밝혀주어 가운데서 감시하는 감시자의 시선들이 어디로 향하는지 죄수들이 인지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죄수들은 자기 자신들이 항상 감시 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고, 결국 죄수들이 규율과 감시를 통하여 내면으로 스스로를 감시하게 된다는 것이다[5]. 이처럼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을 인지하여 나타나는 행동 규제는 주로 자기 자신에 대해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평가하는 지에 중점을 두고 자기 자신에 대한 다른 사람들 시선은 자신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 존재를 결정짓는 사회라는 눈이 존재하고, 무의식속 시선에 의한 규제된 행동에서 표출된 심리적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어진다.

2.2 ‘블랙스완’에서 보여지는 불안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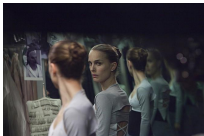


Fig. 2. movie black swan

‘백조의 호수’공연을 각색한 ‘블랙스완’은 백조와 흑조라는 1인 2역의 주인공 역할을 두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나타나는 주인공의 처절하고도 불안한 심리를 표현한 영화이다. 현실적 불안감 속 자기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라이벌에 의해 영화가 진행될수록 주인공의 감정은 더욱더 극대화되고, 완벽하고 싶었던 욕망으로 인해 자기 자신이 한 마리의 흑조가 되어간다. 상처 난 등에 검은 깃털이 돋아나고, 발가락이 마치 흑조처럼 붙어버리는 환각, 집에 걸려있는 그림들이 자신을 보며 비웃으며 슬퍼하는 것 같은 환각과 환청들이 불안한 심리를 대변해주고 있다. 스타덤에 대한 압박과 그 역할에 자신이 적합한 인물이 맞는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들에 대한 부담

감 또한 주인공을 더욱 위협하게 만들고, 정서적 고통을 불러일으킨다. 백조의 새하얀 의상과 붉게 물들어진 새빨간 피, 그리고 검은 흑조의 이 3가지의 극적인 색채 대비는 불안한 심리를 시각적으로 증폭시키고 강렬한 인상을 남긴다. 본 연구자는 이 색채에서 느껴지는 긴장감과 더불어 다른 감정들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색채가 심리에 반영한 표현들을 조사해보고자 한다.

2.3 색채심리표현

색채는 사람의 감정에서 오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심리상태를 대변해 주는 표현방법 중 하나이며, 무의식중 자기도 모르는 과정에서 억압된 감정이 색채로 표출한다. 고프리치(E.H.Gombrich)의 “색상의 경험은 마음의 심층까지 자극한다.”라는 말처럼 색채는 직접적인 정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인간의 정신생활과 함께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6]. 각각의 색채마다 다양한 심리효과를 가져오며, 이에 따라 영화 ‘블랙스완’에서 보여지는 대표적인 색인 빨강, 검정, 흰색에 나타나는 이미지와 그에 따른 일반적인 심리와 특성을 분류해보았다.

- 흰색(White)

순수함과 깨끗함을 상징하는 흰색은 청결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에게 신뢰감을 주는 색상으로 겸손과 진실을 상징하기도 한다. 하지만, 다채로움이 없어 생명력이 결핍, 상실감, 절망을 의미하기도 한다.

- 검정색(Black)

검정색은 동양과 서양과의 의미가 다르게 보여진다. 동양에서의 검정색은 오방색에서 수(水)로 인간의 지혜를 보다 긍정적인 의미로 인식되는 반면에 서양에서 검정은 허무, 절망, 질병, 죽음, 불행 등의 부정적인 색상으로 인식된다. 일반적으로 검정색은 어두운 힘을 대표하며, 공포의 이미지를 포함한 암울, 슬픔, 어두움, 죽음을 나타내기도 한다.

- 빨강(Red)

빨강색은 색중에서 가장 자극적이고 역동적인 색으로써, 시각적인 반응을 제일 먼저 느끼는 색상이다. 이 색은 정열을 상징하며, 열정, 뜨거움, 활동적이며,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진 반면에, 부정적으로는 고통, 위협, 전쟁, 죽음 등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심리적으로는 흥분적이고 자극성이 강하며 불안을 초래한다[7, 8].

2.4 사례연구

2.4.1 눈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작품

시선 공포에 대한 불안의 시작은 타인의 시선에 대한 인식이다. 시선이라는 시각적인 이미지를 구축하기 위하여 눈을 상징으로 표현한 장신구들을 조사해보았다.



Fig. 3. eye / Brunomatinazzi / 1968



Fig. 4. SCOOPHOBIA/ Kim Yoon-Hee / 2014

브루노 마티나찌는 신체의 일부분을 표현하는 조각가이자 장신구 작가이다. 한 인터뷰에서 그는“입술, 눈 그리고 손가락은 보편적 이미지와 형태를 갈망하는 온전한 인물의 디테일이며 1968년부터 이러한 이미지를 사용했다. 그 당시에 그것들은 위기 속에서 분열되는 세상의 파편들 같았고, 이후에는 전체를 대표하는 상징과 원칙들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그의 작품 중 눈의 표현은 다른 작가들과는 다르게 눈의 동공을 축약하고 무시한 표현의 작업 특징을 엿볼 수 있다. 눈이 표현된 장신구는 축약된 동공으로 인해 시선을 명확히 알 수 없고 각도마다 다른 느낌을 주는 장신구가 되어 각기 대상마다 구상하는 바가 달라진다. 시선에 대한 공포를 표현한 김윤희 작가의 장신구에서도 눈을 직접적인 도구로 사용하여, 시선에 대한 불안한 심리를 눈을 통하여 설명하고 있다. 작가는 낯선 사람에 대한 시선이 자신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것이라고 단정하여 의식하게 되어 소극적인 자세로 취하게 되며, 의식하여 불안을 느낀다고 생각했다. 지각각각인 동시에 인지각각이라는 것에서 시선, 눈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사회 공포증이 자신이 느끼는 이상 공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치료의 첫 단계라고 하여, 작업을 통해 자신의 시선공포를 치유할 수 있도록 작품을 전개하였다[9].

2.4.2 회화에서 나타난 색채심리

몽크는 감상자들에 감성을 자극하며, 작품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관을 표현한 작가이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광기와 죽음을 그림에 옮기고,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감과 절망감을 그림으로써 그의 방식대로 저항해 보려고 한 것이다. 작품에서 나타난 인간의 내적인 감정을 전하기 위하여 형태와 색채를 왜곡하고 흘러가는 곡선으로 표현하였다. 몽크의 절규에서 인물은 유령 또는 병마에 지치고 시달리는 환자의 모습처럼 표현되고, 좌절에 빠진 사람을 극적인 형태로 표현하기 위하여 왜곡된 형태와 어둡고 강한 색채를 사용하였다. 작품의 배경은 삼원색인 빨강, 노랑, 파란색이 주로 표현되었다. 빨강의 부정적인 의미로는 분노 표출, 원망을 나타내며, 노란색은 인간의 절망감과 정신적인 좌절, 파란색은 좌절로 인하여 냉담하고 무관심한 상태로, 색채를 통하여 작가의 불안한 감정과 공포감을 엿 볼 수 있다[10].

또 다른 대표적인 화가 빈센트 반 고흐는 강렬한 붓터치와 색채감으로 작가의 심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고흐는 자신이 처해진 상황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아 작품의 색채가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초기작품에는 사랑에 대한 좌절감, 가족들과의 불화, 경제력 없는 무능력으로 동생에게 의지하는 심리적 부담감, 화가를 반대하는 아버지와의 갈등, 아버지의 사망 등 주변과 단절되고 고립된 이 시기에 완성된 작품들은 대부분 어두운 색조로 채색되어 절망감과 우울한 분위기를 느끼게 해주고,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감자 먹는 사람들>을 꼽을 수 있다. 네덜란드를 떠나 파리로 온 고흐는 여러 인상파 화가들과 새로운 만남으로 전통 화법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표현을 원했던 고흐는 영향을 받아 색채도 밝아지고 양식도 변하였다. 비록 많은 작품들을 완성하며 독자적인 양식과 노란색 및 흰색으로 정서를 표현하는 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중요한 시기였지만 경제적 생활의 빈곤으로 화사한 색채들이 만들어내는 시각적인 매혹 뒤편에는 그를 죄어오는 허무감과 정신적 불안감들이 잠복해 있다. 청색을 통하여 슬픔과 체념을 극복하고자 하였고, 노란색을 사용하여 자신의 병적인 정신상태의 정서를 표현하여 삶을 지탱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11-13]. 고흐에게 색채는 기분이나 상태, 병고, 생활 속의 빈곤, 심리적인 불안을 엿볼 수 있으며, 색채로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삼았다.

2.5 연구작품

2.5.1 제작의도와 방법

이 연구는 ‘눈’과 ‘사람들의 시선에 대한 불안함’에 중점을 두고 눈을 직접적으로 시각화하여 장신구에 표현하였다.

드로잉을 진행하면서 그려진 깃털 하나하나의 가닥들은 서로 겹쳐지고, 뒤엉키며 마치 인간의 복잡한 심리를 대변하듯 비취진다. 드로잉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적 소재인 깃털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작은 바람에도 흔들리는 깃털은 마치 인간의 불안한 모습이 반영된 듯 긴장되고 떨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불안한 마음이 신체적인 반응으로 나타나는 다리 떨림이나 입술의 떨리는 이미지가 겹쳐 보이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깃털의 움직임を 가지고 본 연구자는 깃털을 소재를 적극 활용하여 전반적인 작품에 주로 사용하였다.

동시에 불안의 심리를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색채 대비를 통해 표현하였다. ‘불안’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로 복잡하면서도 무섭고, 어둡고 칙칙한 느낌을 검정, 흰색, 빨강의 색채로 극대화시켜 감정이 잘 전달할 수 있도록 표현하였고, 어둠을 상징하는 검은색 깃털과 가장 자극적인 색채인 빨간색을 활용한 대비 효과는 강한 자극과 더불어 불안을 초래하게 만드는 심리 효과를 유도하여 장신구를 제작해 보았다.

2.5.2 작품설명



Fig. 5. Desire / brooch / feather, nickel, brass, acrylic



Fig. 6. attentions / brooch / feather, nickel

초기 작품은 시각적인 정보를 인지하는 동시에 보고 판단하는 사고가 이루어지는 ‘눈’에서부터 시작되었으며, 눈을 통하여 사람들의 시선과 기대에 대한 심리적 불안감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얀 백동과 검게 착색된 황동, 검은 깃털, 빨강계 흩뿌려진 색채대비로 인한 불안한 내면을 강조하여 전달하고자 하였다.

불안감과 타인의 시선에 대한 불안감들로 가득 차있는 형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욕망>에서는 외면을 보다 강한 이미지로 부여하기 위하여 밝은 색채보다는 채도가 낮은 검은 색채 아크릴을 사용하여 절망, 어두운 부정적

인 면들을 표현해보았다. 광을 낸 금속표면의 반사를 통하여 마치 거울처럼 자기 자신의 내면을 비취보듯 감상자들이 자신의 내면의 모습을 생각해 보도록 간접적으로 유도하였다. 복잡한 형태의 투각된 금속은 불안한 심리를 대변하고, 옆으로 빠져나온 깃털들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형상을 나타내었다.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느끼는 불안감을 하나의 시선에서 다른 수많은 시선까지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였고, 대부분의 눈의 형태는 위쪽으로 뾰족하게 강조하여 투각하여 타인의 시선을 자각한 나의 예민하고 날카로운 심정을 대변하여 표현하였다.



Fig. 7. anxiety / brooch / feather, nickel, brass



Fig. 8. attentions2 / brooch / nickel, aluminium

시선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통제되어진 행동들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위하여 그물망을 사용하여 보다 억압되어지고 갇힌 불안한 내면을 대변하듯 표현하였다. 깃털의 작은 흔들림에 떨리는 움직임을 불안한 심리로 긴장되어진 모습을 담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더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수많은 시선들을 형상화한 눈의 개체들을 군집시키고 움직이게 함으로써 수많은 시선에 노출된 모습에 빚대어 불안 심리를 보여주하고자 하였다.

3. 결론

불안은 현대사회에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심리 현상이며, 불안한 심리의 원인은 다방면으로 우리와 밀접하게 지리 잡고 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한 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방법으로 수많은 상황에 처해져 있고 외부적인 요건으로부터 내부적인 면까지 불안을 초래한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의무로써 서로 경쟁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타인의 수많은 시선에 노출되어 불안을 야기한다[14,15]. 본 연구자는 불안의 원인이 타인의 시선인 눈에서 시작한다고 판단하며, 영화 '블랙스완'에서 반영된 불안 심리를 연구하였고, 사람들의 시선인 '눈'을 디자인 요소로 하여 직접적으로 시각화하는 동시에 강렬한 색채 대비를 통하여 장신구를 제작하였다. 강렬한 색채들은 불안한 감정을 한층 더 고조시켰고, 이러한 감정들이 왜 나타나는지 색채들이 가지고 있는 심리 특성들을 찾아보고 회화에서 나타난 색채심리를 분석해보았다. 몽크와 고흐의 작품에서 보여주듯 색채감은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이며, 작가의 심리를 대변해 주고 있다.

이처럼 영화에서 반영된 불안 심리를 연구자 자신에게 대입하여 불안을 형상화한 장신구로 오피메이지 않고 자유롭게 표출하려고 노력하였다. 금속과 깃털을 이용한 작업 과정 후, 마지막 단계의 작업에서 가장 역동적이고 자극적인 빨간색 색채를 사용함으로써 무의식 중 억압된 감정들을 표출하였고, 표출된 표현에 의해 심리가 조금이나마 안정을 찾게 되는 과정을 느낄 수 있었다.

본 연구자는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현대인들에게 장신구를 통해 내면의 불안한 심리를 시각적으로 형상화시키고 표출하는 과정을 통하여 불안을 직면하고 감정을 공유하고자 하였다.

REFERENCES

- [1] A. De Botton. (2011). *Status Anxiety*. Seoul : EunHanengNaMu Publishing co.
- [2] C. M. Lee. (2018). Development of an Multi-dimensional Affect Scale for Distinguishing between Depression and Anxiet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10), 393-406.
DOI : 10.15207/JKCS.2018.9.10.393
- [3] Kierkegaard . (1999). *The Concept of Anxiety*. Seoul : Hangilsa Publishing co.
- [4] J. Y. Park & H. Y. Yoon. (2018). Clinical Convergence Study on Attention Processing of Individuals with Social Anxiety Tendency : Focusing on Positive Stimulation in Emotional Context.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9(3), 79-90.
DOI : 10.15207/JKCS.2018.9.3.079
- [5] J. Bentham. (2007). *Panopticon*. Seoul : Chaeksesang Publishing co.
- [6] E. H. Gombrich. (2003). *The Story of Art*. Seoul : Yekyoung Publishing co.
- [7] Tamio Suenaga. (2001). *Color Psychology*. Seoul : Yekyoung Publishing co.
- [8] F. Birren. (1996). *Color & Human response*. Seoul : Sigongsa Publishing co.
- [9] Y. H. Kim. (2015). *Study of Jewelry Expressing Scopophobia*.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Design Kookmin University. Seoul.
- [10] Edvard Munch. (2000). *Munch Munch*. Seoul : Davinci Publishing co.
- [11] V. Van Gogh. (2017). *The Letter of Vincent Van Gogh*. Seoul : Yedam Publishing co.
- [12] V. Van Gogh. (2007). Vincent van Gogh a self-portrait in art and letters. Seoul : thinking tree Publishing co.
- [13] J. R. Kim. (2012). *Vincent Van Gogh's Painting Study on Sensibility & Characteristics of Color Express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ankook University. Seoul.
- [14] C. Taylor. (2001). *Malaise of modernity*. Seoul : Ehaksa Publishing co.
- [15] F. J. Moreno. (1983). *Between Faith and Reason*. Seoul : Moonumsa Publishing co.

김 성 루(Sung-Ryun Kim)

✉



- 2012년 2월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 공예학과(학사)
- 2015년 2월 : 국민대테크노디자인대학원 주얼리디자인과(석사)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대학교 귀금속보석디자인과(박사수료)
- 관심분야 : 금속공예, 디자인
- E-Mail : sryun898989@gmail.com